

박사학위논문

경제·경영서 번역장에 대한 연구

- 세 번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

임진(Jin Yim)

이화여자대학교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출판시장에서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경제·경영서 번역가 세 명의 번역실천 사례 분석을 통해 경제·경영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공간인 장의 존재 여부와 작동 방식을 탐색함으로써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번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번역가의 사회적 가시성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한국 출판시장에서 경제·경영서가 독립된 분야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 이후이다(이운주 2021). 앞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거치며 급격한 세계화와 함께 신자유주의 사상이 유입되었고, 잇따른 경제위기로 경제·경영 지식 수요가 증가했으나 국내에는 이를 충족할 저자 층이 충분치 않았기에(김기욱 2007) 수요의 상당 부분을 번역서가 충당하였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경영서가 출판시장의 전통적 강자인 문학을 뛰어넘는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출판번역에 대한 국내 번역학 연구는 연구 분야 측면에서는 문학번역에, 연구자료 면에서는 번역결과물 텍스트와 역자후기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소위 번역학의 ‘사회학적 전환’(sociological turn)(Snell-Hornby, 2006: 47-67)이 시작된 지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번역사회학 연구 중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척된 부르디외의 장 이론 기반 실증적 연구가 유독 국내에서는 미미하게 이루어졌다(임진, 2020: 173). 이에 본 연구는 장 이론의 핵심 개념인 장(field), 아비투스(habitus), 자본(capital), 일루시오(illusio), 헥시스(hexis)(Bourdieu 1991; Bourdieu

www.kci.go.kr

and Wacquant 1992)라는 틀을 바탕으로 삼아 경제·경영서 번역에 종사하는 번역가 A, B, C 세 명을 연구하였으며, 연구자료에 번역결과물 텍스트와 광범위한 결 텍스트를 모두 포함하였다. 또한 심층면접조사로 분석 결과를 검증 및 보강하여 번역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의 작동 방식을 탐색하고, 이 공간이 부르디외가 정의하는 장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고찰함으로써 기존 국내 번역사회학 연구의 지평을 양적, 질적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 출판번역장의 현황을 조사하고, 둘째 연구대상 번역가들이 번역 실천을 영위해 나가는 전략, 셋째 그 과정에서 타 주체 및 사회구조와 주고받는 상호작용, 넷째 이들의 전략과 상호작용이 실제 이들이 생산한 텍스트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섯째 장의 작동 기제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경영서 번역장이 사회적 실천을 위해 주체가 결합하는 부르디외의 장(Bourdieu and Wacquant 1992)에 해당되는지를 논의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연구 방법

상기 제시된 여섯 가지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 텍스트의 질적·양적 분석, 심층면접 세 가지를 활용하였다.

부르디외와 바캉(Bourdieu and Wacquant 1992)는 장 내 주체의 실천을 연구하기 위해 우선 실천이 이루어지는 사회구조인 장, 장 내 주체 및 기관이 점유하는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힌 바, 본 분석에 앞서 예비조사의 성격을 띤 문헌조사를 통하여 첫 번째 연구질문인 한국 출판번역장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세 번역주체의 전략과 상호작용, 이들이 기술하는 헵시스 탐구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우선 광범위한 결텍스트를 수집하고, 이를 장 이론의 핵심개념(아비투스, 자본, 일루시오, 헵시스)에 따라 체계적 질적코딩을 수행하여 1차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런 다음 각 번역주체와의 심층면접에서 1차 결과를 검증 및 보강하였다.

또한 이들이 기술하는 헵시스가 실제 연구대상 번역주체가 생산한 텍스트에 투영되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이들의 번역서와 원문을 수집하여, 역사후기에 대한 무브분석(move analysis)(Bhatia, 1993)과 번역결과물에 대한 코퍼스 분석을 수행한 다음 통계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이 체계적인 질적분석 절차를 도입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 장치를 도입하여 질적연구가 가질 수 있는 주관성의 한계를 좁히고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3. 분석 결과

상기 연구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경제·경영서 번역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3.1. 한국 출판번역장의 작동 방식

본 분석을 위한 예비조사의 일환으로 경제·경영서 번역장의 현황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경영서 번역장은 경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위기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경제·경영서 번역장의 태동이 촉발되었고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번역가들이 경제·경영서 번역가가 된 직접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경영서 번역장이 속하는 출판번역장의 경우 번역서의 상업적 성공을 최우선으로 삼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직후인 2000년대 초 이후, 급격한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서구 경제사상에 대한 지식 수요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국내 저자진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경제·경영 분야의 번역서 비중이 높아지고 번역 수요 또한 늘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IMF 관리체제에서 요구되는 유연한 고용정책으로 인해 금융분야를 포함한 많은 대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경제·경영 분야의 지식과 기업활동 경험을 겸비한 고급 인력이 번역장에 유입되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번역가 세 명 중 두 명은 구조조정으로 각각 대기업 및 금융기관에서 퇴사한 뒤 여러 경로를 거쳐 결국 번역에 종사하게 되었고, 나머지 한 명은 경제·경영에 대한 지식 수요 급증으로 경제·경영 전공자를 선호하는 관행 덕분에 장에 입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역가가 번역실천에 종사하게 된 과정에는 사회구조 및 타 주체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존재했다.

3.2. 세 번역가의 자본축적 전략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번역가의 결택스트를 수집하여 질적코딩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층면접을 통해 보강한 결과 경제·경영서 번역장에서 세 번역가가 번역실천을 통해 상이한 자본 축적 과정을 거치지만, 공통적으로 문화자본 축적이라는 전략을 동원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경영학 전공지식이라는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장에 입문한 세 번역가는 모두 장에서 번역가로서의 상징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여 상이한 자본 축적 과정을 거쳤다. 대기업 근무 경력과 사업 경험이 있던 B는 직접 번역 에이전시와 교육기관을 창업하여 사회자본을 확보하였고, 투자 관련 요직을 거쳐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C는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서 이미 성공을 거둬 상징자본을 확보하고 있는 원전을 번역하고자 고군분투했다. 여타의 경험이 없는 A의 경우 SNS 활동을 통해 번역가로서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해 나갔다.

세 번역가의 자본축적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경제·경영서 번역장에서 중시되는 문화자본인 번역서 및 결택스트 축적이었다. 기존에 어떠한 책을 번역했는지는 번역가에게 주요한 이력이기에, 각 번역가는 자신이 양서라고 간주하는 책의 번역을 맡기 위하여 번역가로서 명성을 쌓아갔다. 한편 상업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출판사는 번역서 출간에 관련되는 원작자, 원서, 감수자, 추천사 작성자 등 모든 요소의 상징자본을 총동원하여 번역서의 성공을 꾀하려 하고, 번역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번역가 역시 저술 및 강연, 방송 출연, SNS 활동 등의 다양한 결택스트 축적을 통해 전략적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 세 번역가와 장 내 구성원 및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

셋째, 세 번역가가 자본획득 과정에서 장의 사회구조 및 장 내 주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결택스트 분석 및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각 번역가는 자신이 축적한 자본의 정도에 따라, 상호작용의 대상에 따라 유연하게 관행의 수용여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역가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문화자본 축적 과정 역시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경제·경영서의 경우 상업적 성공을 위하여 번역가의 역자후기보다는 유명인의 추천사가 선호되며, 번역가가 역자후기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출판사는 역자후기에 번역가의 목소리보다는 원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전시 운영자로 출판사와 번역가의 중간자 입장인 B, 그리고 에이전시를 통해 번역을 수수 받는 A의 경우 이를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C의 경우 경제·경영서 번역장 입문 초기에는 이를 수용했지만, 번역가로 어느 정도 명성을 쌓은 후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자신의 역자후기를 수록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A의 경우 역자후기 지면을 제공받지 못하는 대신, 번역가에게 주어지는 역자 약력 지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번역가의 목소리를 수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 번역가는 좋은 원전을 번역하는 것이 좋은 번역가라는 공통된 전제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번역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 내 입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역가 모두 번역가로 자리잡지 못한 장 진입 초기에는 에이전시 또는 출판사에서 수동적으로 번역서 의뢰를 받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도 거절하지 못하고 다 번역하지만, 장에서 입지를 확보함에 따라 샘플 번역에 지원하거나(A), 아예 자신이 에이전시를 차려 번역서를 고르거나(B), 자신이 원하는 원전을 번역할 수 있는 출판사를 찾고 번역 기획을 통해 새로운 출판 관행을 구축해 나갔다(C). 이 과정에서 C가 장 진입 전 확보하고 있던 명성이나 인맥 등은 그가 경제·경영서 출판장 고유의 이해관계인 번역능력을 인정받아 어느 정도 입지를 구축한 후에야 유효했다.

3.4. 세 번역가의 헤시스

결텍스트 분석과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한 세 번역가의 상이한 원문 중시 헤시스를 코퍼스 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A와 B가 C에 비해 원문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와 B는 원문의 구조와 형태를 유지하는 번역관과 원문 중심의 역자후기를 작성하며, C는 목표어 중심으로 원문의 구조를 변형하는 번역관과 번역가의 목소리를 역자후기에 반영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세 번역가가 생산한 번역결과물 20편과 원전 20편씩 총 120편(원전 60

편, 번역서 60편)의 첫 장을 표본으로 하는 번역결과물 코퍼스와 세 번역가의 역자후기 전편을 수집한 역자후기 코퍼스를 구축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C의 전체 원문변형 빈도 및 삭제, 문장분할, 자국화 전략 비중이 A, B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 B의 경우 문장병합 및 이국화 전략 비중이 C보다 높았다. 이는 세 번역가의 진술과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역자후기의 경우 번역에 대한 내용이나 번역가의 목소리가 B의 역자후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C의 경우 31%를 차지하였고, A의 경우 역자후기 빈도가 적어 의미 있는 비교가 어려웠다. 이 역시 각 번역가들의 진술과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C의 목표어 중시 경향은 그가 번역을 습득한 주요 수단인 이론서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A, B의 원문 중시 헤시스는 번역교육 방향 및 급격한 서구 이론 유입이라는 시대적 배경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3.5. 경제·경영서 번역장은 무엇이며, 이는 장의 정의에 부합하는가?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제·경영서 번역장은 경제·경영 전문지식과 번역능력을 갖춘 번역가들이 번역능력을 기반으로 번역서 선택권 확보를 위해 투쟁하는 사회적 공간이다. 이러한 투쟁이 가능한 것은 전적으로 장 내 투쟁에 참여하는 번역가들이 좋은 책을 번역하는 것이 번역가로 성공하는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경영서 번역장은 자본을 위한 경합이 벌어지는 장이라는 부르디외의 정의에 부합하는가? 번역을 사회적 행위로 간주하는 번역사회학 내에 서조차 번역은 부차적, 비제도적인 실천이며 진입장벽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장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제·경영서 번역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진입 요건으로 하고, 번역능력이라는 고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장 내 주체들이 양질의 원전을 번역하는 것이 좋은 번역가라는 공통의 일루시오를 공유하는 상징자본 투쟁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부르디외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회적 실천의 공간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개별 번역가의 번역 실천을 상세하게 추적하여 경제·경영서 번역장의 존재와 작동 방식을 규명하는 번역사회학적 연구로, 그 주제 및 분석방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우선 본 연구는 번역결과물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함께 해당 결과물이 생산되는 사회적 맥락 및 배경에 대한 다각적인 추적을 결합한 번역사회학 연구로, 연구 자료를 다양한 결테스트로 확대하고, 다양한 텍스트 분석 기법과 절차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이를 하나의 연구 모델로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번역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번역학 연구의 양적, 질적 공백을 해소하고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번역 학습자와 교수자에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는 출판번역의 하위 분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경제·경영서 번역장에서 번역가가 장에 입문하여 번역가로 명성을 쌓기까지의 경력 발전 과정이 상세하게 제시된다. 또한 실제 번역결과물에서 활용되는 구체적인 번역 전략의 예와 함께 이들이 해당 번역 전략을 선택하게 된 경위를 제시해 준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입문하고자 하는 번역 학습자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구체적 실례를 통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설계하고자 하는 교수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번역가의 번역실천을 연구의 중심에 둬으로써 궁극적으로 번역가의 사회적 가시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며, 번역이 주요한 사회적 실천이라는 인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번역사회학 연구가 부디 다양한 번역 분야와 번역가에 대한 후속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기욱. (2007). 「성숙시장으로 가는 경제·경영서」. 『출판저널』 380: 26.
- 이윤주. (2021). 「수학의 정석도 따라잡겠다'...코로나 불황에 '경제·경영서' 역대급 인기」. 『한국일보』 2021년 12월 7일. (2023년 10월 23일 검색,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21514140004159?did=kk>)
- 임진. (2021). 「어느 실용번역가의 아비투스 연구」. 『통번역학연구』 24: 167-199.
- Bhatia, V. K. (1993). *Analyzing Genre*. London: Longman.
- Bourdieu, P.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Cambridge: Polity.
- Bourdieu, P. and Wacquant, L. (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e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nell-Hornby, M. (2006).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New Paradigms or Shifting Viewpoint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본 초록은 ‘임진. (2023). 경제·경영서 번역장에 대한 연구’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Author's email address

jy2812@gmail.com

About the author

Jim Yim(<https://orcid.org/0009-0005-4335-3329>) is an adjunct lecture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t Ewha Womans University. Her current research interests encompass sociological approaches to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practices, and corpus-based analyses of human and machine translation.

www.kci.go.kr